



2013년 11월 22일

투자전략

Daily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시황 | 박소연 ☎ 3276-6176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계량/파생 | 안혁 ☎ 3276-6272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이머징마켓 | 윤항진 ☎ 3276-6280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시장 이슈에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 **경제분석**

내수가 수출을 앞지르고 있다

- **계량분석/주보**

최근 10주간 봉수 수익률 13.6% 달성

- **채권분석**

옐런효과로 약세 진정되었으나, 본격적 강세 전환은 어려울 것

- **이머징마켓 동향**

지표부진에 상해종합 약보합, 홍콩H 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기아차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은행, 디지털옵틱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치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true friend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67.56	2,005.64	2,010.81	2,031.64	2,017.24	1,993.78
	등락폭	4.00	38.08	5.17	20.83	-14.40	-23.46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6)	538(4)	342(11)	427(3)	385(18)
		하락(하한)	368(1)	280(3)	463(3)	394(7)	420(0)
	ADR	82.50	84.01	82.32	80.49	82.20	76.69
	이격도	10 일	98.45	100.53	100.86	101.81	99.95
		20 일	97.28	99.27	99.63	100.73	100.06
	투자심리	3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23	260	314	397	311
	거래대금	(십억 원)	3,810	3,613	3,090	4,232	3,737
코스닥	코스닥지수	511.75	512.74	509.54	505.50	504.16	501.05
	등락폭	6.15	0.99	-3.20	-4.04	-1.34	-3.11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8)	535(9)	342(2)	289(4)	386(6)
		하락(하한)	368(5)	384(3)	463(3)	645(4)	521(1)
	ADR	82.42	82.09	78.25	74.88	77.54	71.85
	이격도	10 일	98.59	99.20	99.05	98.71	98.87
		20 일	97.41	97.72	97.30	96.77	96.71
	투자심리	3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76	310	290	296	235
	거래대금	(십억 원)	1,333	1,381	1,471	1,585	1,139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유가증권	매수	1,645.6	775.6	795.3	152.6	82.8	194.2	58.7	27.4	279.591	45.1
	매도	1,373.6	1,012.4	844.7	267.7	81.6	202.4	84.0	22.0	187.1	30.9
	순매수	272.0	-236.8	-49.4	-115.1	1.2	-8.1	-25.3	5.4	92.5	14.1
	11 월 누계	909.5	-569.6	-210.0	-920.3	14.1	238.3	89.6	-79.5	447.8	-129.9
	13년 누계	-4,126.6	4,598.9	1,279.8	130.0	1,213.3	-6,089.0	-363.3	-2,726.3	9,115.2	-1,752.1
코스닥	매수	971.9	65.6	55.1	8.3	5.4	17.4	2.7	2.0	19.3	10.0
	매도	974.6	61.4	57.0	9.8	7.5	16.3	4.7	1.4	17.3	9.5
	순매수	-2.7	4.2	-2.0	-1.5	-2.1	1.1	-2.1	0.6	2.0	0.5
	11 월 누계	237.8	-76.5	-144.2	-49.4	-9.1	-9.6	4.1	-4.1	-76.0	-17.2
	13년 누계	-529.7	1,636.2	-245.1	-181.3	-101.8	106.3	-146.7	-88.3	166.7	-861.3

시장 이슈에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2014년 Target KOSPI	2,250pt
12MF PER	9.6배
12MF PBR	1.03배
Yield Gap	7.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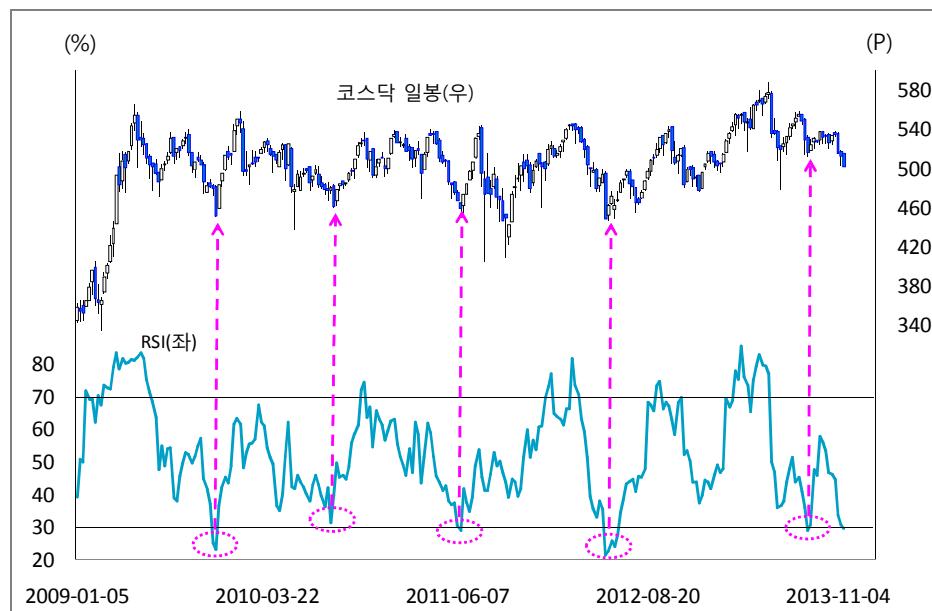
- ▶ KOSDAQ 500pt선 단기 지지선 접근, 지나친 비관론 보다 종목 선별 작업이 필요한 시점
- ▶ 하반기 시장에서 활발히 거론된 주요 이슈 중에 투자 아이디어 찾기
- ▶ 시장 이슈에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태블릿PC, 전기차(자동차 전장화) 관련주 등

KOSDAQ 500pt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
최근 지표는 투자자들의
낮아진 기대심리를 반영

■ KOSDAQ 500pt선 단기 지지권 접근. 종목 선별 작업이 필요한 시점

KOSDAQ이 500pt 선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연초,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대와 함께 수급 여건 등이 개선되며 상승세를 보였던 KOSDAQ은 상반기에는 지난 4년간 저항선으로 작용했던 550pt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출구전략 우려와 함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기관 중심의 매도세가 더해지며 KOSDAQ의 상대 낙폭은 KOSPI 대비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바라는 기대심리가 낮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연평균 대비 20% 이상 감소한 1.5조원대의 KOSDAQ 일일 거래대금과 RSI(상대강도지수) 하락 추이는 이를 방증하는 지표로 보인다.

[그림 1] KOSDAQ 일별 주가와 RSI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KOSDAQ 단기 지지선

버팀목 기대.

지나친 비관론 보다는

종목 선별 작업이 바람직

현재 KOSDAQ의 흐름을 바꿀만한 뚜렷한 상승 동력이 보이지 않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지나친 비관론에 편향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이다. 우선, KOSDAQ이 단기 지지선으로 인식되는 500pt선 까지 접근함에 따라 당분간 지수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최근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3분기 실적 실망감은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종목 선별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시장에서 활발히 거론된 이슈를 살펴보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작지만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 시장 이슈에서 찾아보는 투자 아이디어: 태블릿PC, 전기차/전장화 등

하반기 주식시장 주요

이슈: 전기차, 3D 프린터,

LED 조명, SNS, 출구전략,

중저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등

올 한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거론된 시장 이슈로는 전기차, 3D 프린터, LED조명, SNS, 중저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출구전략(Tapering), 아베노믹스, 원화 강세 등이 있다. 이 중, 주가 상승률로는 3D 프린터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3D 프린터는 관련 산업 기반이 아직 미약한 가운데, 기대감 만으로 주가가 급등한 상황이다. 또한, SNS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은 주요 이슈가 희석되며 상승 동력이 상당 부분 소멸되었다는 판단이다. 출구전략, 원화 강세 등은 내년에도 주요한 이슈로 보이나 관련 주들의 영향도를 점검하기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이슈 중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태블릿PC 및 전기차(자동차 전장화) 관련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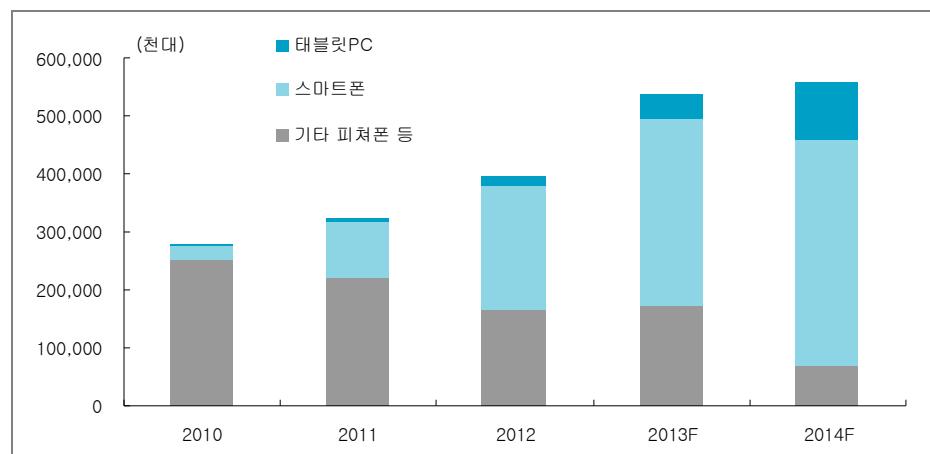
삼성전자의 내년도

사업계획서 발표:

태블릿PC 성장에 주안점

기업의 사업계획서 발표는 기업 변화상을 가늠할 수 있는 좋은 장대이다. 얼마전, 삼성전자는 8년 만에 애널리스트데이를 개최하며 내년도 단기적인 사업 방향을 태블릿PC 성장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금광과 같은 모바일 사업에서 주도권을 유지한 채 애플을 완전히 따돌리기 위한 단순한 전략일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기의 혜택모니가 디스플레이 화면 증대와 함께 애플에서 삼성으로 이동했다는 점에서도 이는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적인 이유를 제외하더라도, 태블릿PC의 성장성은 충분히 유효해 보인다.

[그림 2] 삼성전자 연도별 휴대폰 판매량 추이



주: 2013, 2014 전체/태블릿PC 판매량은 사측 목표치 기준, 스마트폰 판매량은 당사 추정치 기준
자료: 삼성전자, 한국투자증권

무엇보다, 태블릿PC는 아직 스마트폰 만큼 대중화되지 않았다. 올해 삼성전자 예상 휴대폰 판매량 5.4억대 중 스마트폰 판매량 3억대 수준이나 태블릿PC는 약 5천만대에 지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내년도 휴대폰 판매 목표를 올해 보다 약 20% 가량 증가한 5.6억대로 잠정 제시했고, 이 중 태블릿PC의 판매 목표는 올해 보다 2 배 이상 증가한 1억대이다. 최근, 태블릿PC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 추정치는 최근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로 촉발된
친환경차 개발과
자동차 기술 발전이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

전기차는 2013년을 주도한 가장 핫한 이슈 중 하나였으나, 테슬라의 배터리 화재 사고로 인해 관련주의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테슬라로 촉발된 친환경차 개발과 자동차 기술 발전이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기아차, 한국GM 등에 이어 BMW가 전기차 시판에 나서며, 현대차는 ‘투싼ix’ 등 수소연료전지차의 미국 시판을 계획 중이다.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차 개발과 아울러 관련 전장 기술 개발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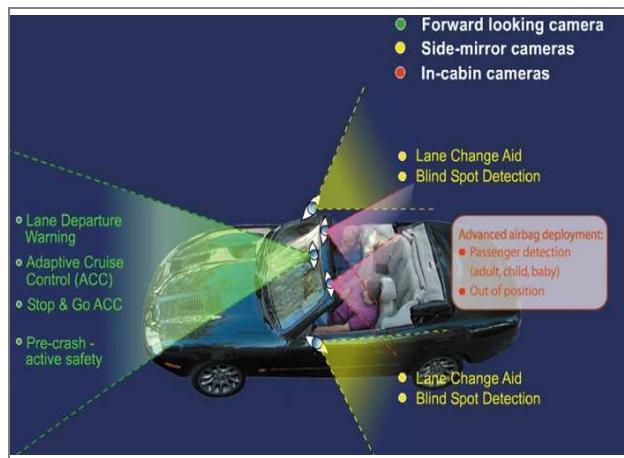
자동차 전장화는 아직까지 상용화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컨셉카로만 보이던 전기차가 어느 순간 현실화가 됐듯이, 자동차 전장 관련 기술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착실히 진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스라엘 업체인 ‘모빌아이(Mobileye)’라는 기업을 참고사례로 소개하고자 한다. 모빌아이는 스마트 카메라 기술을 응용한 차량 충돌방지 시스템 개발업체로, 궁극적으로는 ‘충돌하지 않는 차(무인자동차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다. 모빌아이의 제품은 칩(센서)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전후방 추돌과 차선 이탈, 사각 지대/보행자 등을 인식하고 위험 상황시 운전자에게 경계 경보를 준다고 한다.

[그림 3] 모빌아이 제품: 5-Series



자료: Mobileye.com, 한국투자증권

[그림 4] 모빌아이 작동 프로세스 예시



자료: Google, 한국투자증권

중소형주 투자전략

모빌아이는 최근 자신들의 기업가치를 15억\$(약 1.6조원)로 추정하고, 4억\$(약 4,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이미 완성차 메이저 5개 업체(GM, Ford, 현대차, BMW, Volvo 등)와 파트너쉽을 맺고 제품을 상용화하고 있는 데다, 내년도 IPO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어 향후 행보를 눈여겨볼 만 하다. 국내에 자동차 전장화 관련주는 아직 뚜렷하지 않고, 모빌아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지만, 올해 테슬라가 꿈을 현실로 앞당겼던 것처럼 전장화 관련 산업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표 1> 태블릿PC 관련주

종목명	시가총액	2014F 매출액	2014F	2014F 순이익	EPS 증가율	2014F PER	2014F PBR
			영업이익				
비에이치	173.5	495.8	41	33	25.7	4.9	1.2
성우전자*	87.6	185.0	16.5	17.6	31.3	5.0	0.8
이녹스	296.0	303.2	58.1	46.2	45.4	6.6	1.8
유아이디	135.5	91.6	26.3	20.8	23.9	6.5	1.7
지디	249.5	127.1	37.3	33.4	24.2	7.5	1.9
퀀트로닉스	184.9	372.9	42.7	33.8	27.9	5.4	1.2
이라이콤	255.3	780.9	58.4	43.8	29.8	5.5	1.3
엘엠에스	171.8	167.2	28.8	26.7	38.8	6.9	1.2
아비텍	157.0	205.6	33.0	29.3	139.4	5.4	1.3
미래나노텍	162.3	331.9	27.9	24.4	41.0	6.7	0.7
에스맥	233.8	668.9	49.3	38.1	27.3	6.5	1.3
일진디스플	455.8	836.9	78.0	64.5	8.9	7.1	1.9

주: 11/21 종가 기준. 2014년 실적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산출. 조정 영업이익(IFRS-연결) 기준. *는 당사 추정치 기준

자료: Quantewise, 한국투자증권

<표 2> 전기차/자동차 전장화 관련주

종목명	시가총액	2014F 매출액	2014F	2014F 순이익	EPS 증가율	2014F PER	2014F PBR
			영업이익				
삼성SDI	7,585.5	5,463.1	214.9	588.5	25.7	13.9	0.9
LG화학	19,516.8	25,182.4	2,319.6	1,825.5	25.5	11.9	1.6
만도	2,618.9	6,360.3	403.6	289.2	30.5	9.1	1.3
현대모비스	29,495.2	36,829.6	3,211.7	3,888.1	12.2	7.6	1.2
성창오토텍	64.9	176.0	11.8	11.6	40.2	5.6	0.7
피앤이솔루션	52.3	56.0	6.6	6.7	33.2	7.8	1.1
MDS테크	127.4	96.3	13.0	13.2	32.4	9.5	1.4
한국단자	445.2	650.2	66.7	53.2	9.2	8.4	0.9
우리산업*	142.6	280.0	19.0	15.0	356.2	9.6	2.2

주1: 11/21 종가 기준. 2014년 실적은 컨센서스 기준으로 산출. 조정 영업이익(IFRS-연결) 기준

주2: *는 최근 3개월 내 보고서 발간 실적 기준

자료: Quantewise, 한국투자증권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경제지표

날짜	국가	내용
11/15	한국	미국이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호재 속에 외국인이 10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코스피는 2,000P선 회복
11/15	미국	10월 미국의 산업생산이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 등으로 전월대비 0.1% 감소하면서 3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
11/15	유럽	10월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동기대비 0.7%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
11/16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환율안정이 최우선 순위라며 긴축정책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
11/17	한국	산업부, 오는 2035년까지 원자력 수요가 연평균 3.28%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제외하고 가장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
11/18	한국	10월 한국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대비 0.4% 하락하면서 두 달 연속 내림세
11/18	미국	'옐런 효과'로 인해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장중 16,000P를 돌파했지만 종시 거품론이 제기되면서 15,976.02로 마감
11/18	유럽	유로존 9월 무역흑자가 131억 유로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86억 유로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
11/18	일본	세계최대 공적연금인 일본 공적연금펀드(GPIF)가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을 늘릴 방침
11/18	중국	중국 70개 주요도시 가운데 69개 도시에서 10월 신규주택가격이 전년동월대비 상승
11/18	중국	중국, 부부 중 한명이 독자이면 1가구 2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산아제한정책 완화
11/19	한국	한국 가구의 평균부채는 5천818만원으로 지난해 조사보다 6.8% 증가
11/19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21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함
11/19	한국	KDI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을 IMF와 같은 3.7%로 예상했으며 OECD는 기존 4.0%에서 0.2%p 하향조정한 3.8%로 전망
11/19	미국	OECD, 미국의 내년 경제성장을 2.9%로 0.1%p 높였지만 내년 세계 경제성장을 예상치는 4.0%에서 3.6%로 하향
11/19	유럽	유럽, 10월 자동차 판매가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하면서 2년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증가세
11/19	중국	중국, 10월 외국인 직접투자가 9개월 연속 증가한 84억 2000만달러를 기록
11/20	한국	9월 말 대외채무 잔액은 4,110억 달러로 1년 만에 증가했지만 단기외채는 81억달러 감소하면서 단기외채비중이 14년 3개월 만에 최저치
11/20	한국	10월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대비 0.4% 감소하면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전년동월대비 감소
11/20	미국	버냉키 FRB의장은 실업률이 6.5% 수준까지 떨어져도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저금리 기조 유지 시사
11/20	유럽	분데스방크의 엔스 바이트만 총재는 유럽증양은행이 현 시점에서 추가 통화 완화 신호를 보낸다면 합리적이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
11/20	일본	10월 일본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18.6% 증가하면서 2010년 7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16개월 연속 무역적자 행진
11/20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무디스, 말레이시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
11/21	한국	지난 9월 말 현재 기계신옹은 991조 7천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2조 1천억원이 늘면서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
11/21	중국	중국 11월 HSBC 제조업 PMI지수가 4개월 만에 하락하며 50.4를 기록. 예상치(50.8) 및 전월치(50.9)를 모두 하회

● 한 주간 [11/15~11/21] 이슈 종목 및 업종

구분	종목 및 업종	내용
특징주	전기/가스 업종	정부가 전기요금을 평균 5.4% 인상하기로 하고 도시가스 주들의 배당매력이 부각되면서 서울가스, 한국전력 등 강세
	동부그룹 관련주	동부그룹이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2015년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출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동부하이텍, 동부화재 등 강세
	롯데푸드	원재료 가격 하락 및 2014년 빙과 가격 인상 가능성 확대 등으로 내년 수익성이 개선 될 전망
수급주	아모레G	화장품 소비가 회복되고 공격적인 해외사업 확장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세
	대우조선해양	수주 모멘텀으로 매출이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며 금융위원회의 지분 중 5% 블록 세일로 오버행에 대한 우려 해소
	자화전자	AFA부문에서 경쟁력이 뛰어나고 향후 스마트폰 카메라의 트렌드인 OIS Actuator에 대한 대응력도 갖추면서 외형 성장 전망
	이라이콤	태블릿PC 시장의 성장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주요 고객사내에서 태블릿PC용 BLU 공급접수율이 높은 동사가 큰 수혜를 입을 전망
	라이온켐텍	합성왁스 및 인조대리석 생산업체로 국내 및 해외 리모델링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입을 전망이며 Capa 증설로 매출 기반 확보
	KMH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5% 감소한 23억원으로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해 하한가를 기록한 이후로 기관의 저가 매수세 유입
신고가주	하림	생닭고기 가격(판가)가 공급 감소로 상승하는 반면 곡물가격(원가)은 하향 안정화를 보이면서 실적 개선 전망
	자동차 부품주	현대차의 소나타 신모델 출시 및 유럽 자동차 시장 회복 기대감에 현대위아, 만도, 일지테크 등 자동차 부품주가 신고가 경신
	홈쇼핑 관련주	최근 소비패턴 변화로 패션의류 및 모바일 쇼핑 부문 성장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CJ오쇼핑, GS홈쇼핑 등 신고가 경신
	건자재 관련주	4분기 결혼 특수를 앞두고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에 KCC, LG하우시스 등 건자재 관련주 신고가 경신
	제약주	상위 제약사의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및 성장성이 좋은 메디톡스 등 제약주 신고가 경신
엔씨소프트	중국 시장에서 블레이드앤소울의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근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경신	

주: 수급주는 한 주간 동안 외국인 혹은 기관의 상장주식수 대비 순매수 주식수 비율이 1% 이상이었던 종목이며 신고가주는 한 주간 동안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및 업종

내수가 수출을 앞지르고 있다

■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순수출을 앞질러

3분기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1.1%에 달했는데, 그 중에서 1.6%p가 내수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가진다.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0.5%p로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성장 기여도 측면에서 내수가 수출을 앞지르고 있는 상황은 4분기째 지속되고 있으며, 그 차이도 상당히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경기 부진으로 수출 성장이 크게 위축된 가운데 내수가 살아날 조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건설투자와 소비는 개선 조짐, 설비투자는 바닥 다지기

국내총생산의 민간소비와 소매판매액지수 등 여러 경제 지표에서 소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건설투자는 2013년 들어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다. 설비투자는 아직 회복될 것이라는 조짐이 없지만 적어도 더 이상 악화되는 흐름은 멈추고 있다. 수출은 2011년 3분기 이후 2년째 정체된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내수이지만 수출에 더 많이 연동된 지표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가 내수 부문의 모멘텀은 개선되는 반면 수출 부문은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내수 개선 흐름 더 강화될 전망

내수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출에 비해 다소 양호하다는 정도일 뿐이다. 그러나 향후에는 내수 부문이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 강세 지속,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바탕으로 한 경기 부양 기조, 정부의 가계 지원 정책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최근 10주간 통숏 수익률 13.6% 달성

■ Review: 최근 10주간 통숏 포트폴리오 성과

지난 9월 13일 첫 번째 ‘Quant of the Week’를 발간한 후 10주 동안의 통숏 포트폴리오는 13.6%의 수익률을 달성해 1주 평균 1.36%의 알파를 창출했다. 정보비율(information ratio)은 1.54로 위험대비 수익률 또한 매우 우수했다. 우리는 이러한 우수한 성과가 펀더멘탈과 수급,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동시에 고려한 당사 퀀트 모델이 최근 시장에 잘 맞고 있다고 판단한다.

■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업종: 유틸리티, 무역, 화학 등

지난 한 주 동안 2013년 예상이익은 0.6% 하향되었다. 유틸리티, 제약 등 업종의 이익이 상향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에서 예상이익이 하향 조정됐다. 특히 무역과 증권 업종은 이익 추정치의 하향 폭이 커졌다.

수급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한주간 외국인과 기관 지분율은 각각 0.06%p, 0.01%p 증가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했던 업종은 화학, 무역, 소비자서비스, 미디어, 유통, 소프트웨어, 반도체, 유틸리티 업종이고, 에너지, 기계, 내구소비재 및 의류, 하드웨어, 통신서비스 업종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 현대하이스코 등 4종목 long, 오리온 등 4종목 short

지난 주에 제시한 long 포트폴리오는 코웨이, GS, 현대하이스코, 일진디스플레이로 0.8%의 평균 수익률, short 포트폴리오는 한화케미칼, LG생명과학, 현대상선, S-Oil로 0.9%의 수익률을 기록해 일주일간 -0.1%p의 long-short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번 주 역시 이익 추정치 변화, 밸류에이션, 수급, 이동평균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당사 계량 모델을 바탕으로 주간 long-short 포트폴리오를 아래 표와 같이 제안한다. Long 포트폴리오에는 현대하이스코, 에이블씨엔씨, NAVER, 현대위아가 포함되어 있고, short 포트폴리오에는 오리온, 대한항공, 한진중공업, S-Oil이 포함됐다.

<표> Long-Short 제안 종목

Long 포트폴리오			Short 포트폴리오		
코드	종목명	주가 미니 차트 (1년)	코드	종목명	주가 미니 차트 (1년)
010520	현대하이스코		001800	오리온	
078520	에이블씨엔씨		003490	대한항공	
035420	NAVER		097230	한진중공업	
011210	현대위아		010950	S-Oil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옐런효과로 약세 진정되었으나, 본격적 강세 전환은 어려울 것

■ 이머징 채권시장 동향 : 10월 제한적 약세 전환후 11월 옐런 효과로 약세 진정

10월 하순 이후 미국 테이퍼링 우려로 이머징 국채시장 금리가 재상승했다. 그러나 과거 약세장이나 선진국 국채시장 움직임에 비해 최근의 이머징 국채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이다. 테이퍼링 우려 진정, 과거 약세장의 학습효과가 패닉상태로의 발전을 막았다. 미 연준 의장 지명자인 옐런의 QE 지속 시사로 11월 하순 이후 이머징 국채시장의 약세가 진정될 전망이지만 본질적 안정은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 주요 이머징국 금융지표 : 기준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 전환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기준금리를 각각 25bp씩 인상한 반면 멕시코는 25bp 인하했다. 주요 이머징 환율은 미국 테이퍼링 우려 재연으로 모두 상승세로 전환했고 한국 원화 가치가 주요 이머징 통화에 비해 강세를 보였다. 위험자산 회피도가 강화돼 주요 이머징의 CDS프리미엄이 상승했고, 주가는 시장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

■ 주요국 경제 동향 : 옐런 효과로 시장안정 위한 시간 확보

물가상승압력과 경상수지적자 부담이 큰 이머징 국가들은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화를 도모하였으나, 본격적인 지표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 지표 호전으로 QE축소 가능성성이 높아지며 10월 말 이머징 금융시장 불안 재연 양상이 나타났으나, 11월 중순 옐런 효과로 재차 안정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였다.

■ 이슈분석 : 구름 낀 남아공, 국채 투자 위험 존재

남아공 금리는 11월중 상승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옐런 효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환율도 약세기조를 보이다가 최근 강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남아공은 빈번한 노조 파업이 저성장 기조로 연결되고 있고, 재정적자 및 경상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이 큰 편이다. 또한 남아공 랜드화 표시 국채투자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35%에 달할 정도로 커서 구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탈에 의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 기본적으로 남아공 국채에 대한 투자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과도한 보조금 지출을 축소하는 등의 개혁정책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지표부진에 상해종합 약보합, 홍콩H 반락

- ▶ 11월 HSBC PMI 속보치 50.4로 예상 하회, 차익매물 출회로 상해종합 약보합
- ▶ 역RP발행, 4G라이센스 발급, 자유무역구 시범지역 확대 등 정책기대가 지수 하락폭 제한
- ▶ 홍콩H는 미국 테이퍼링 우려, 본토 경제지표 부진으로 6거래일만에 약세 전환

■ 중국 시장

**상해종합 약보합
보험, 철강, 비철금속, 의료
서비스 등 업종 약세**

상해종합지수가 약보합세로 마감해 2,200선을 지켜냈다. 호, 악재가 겹치면서 장중 한 때 1.1%까지 하락했다가 장 후반에 하락 폭이 빠르게 축소됐다. 거래대금은 1,200억 위안으로 전날보다 확대됐다. 초반에는 11월 중국 HSBC 제조업 PMI 속보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돼 실망감이 확산됐다. 국무원 리커창 총리가 부동산 보유세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정보연동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에 부동산업종이 1% 가까이 하락했다. 인민은행은 14일 물 역RP를 추가 발행하며 유동성 공급을 지속했고 4G라이센스 발급, 자유무역구 시범지역 확대 등과 관련해 정책 기대감이 유지되면서 지수 하락 폭을 제한시켰다. 업종별로는 항공운수(2.3%), 통신서비스(2.2%), 도로운수(2.1%), 석유(1.9%), 농업(1.8%), 석탄(1.6%), 축목업(1.0%) 등이 강세였다. 반면 보험(-2.6%), 철강(-1.4%), 비철금속(-1.4%), 의료서비스(-1.4%), 환경보호(-1.1%), 건설자재(-1.0%), 음식료(-0.9%), 제약(-0.6%) 등은 하락세로 마감했다.

■ 홍콩 시장

**홍콩H 0.9% 하락
은행, 자동차, 기계, 비철금
속, 시멘트 등 약세**

홍콩H지수는 0.9% 하락해 6거래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약세로 출발했고 장 중 내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다.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양적 완화 축소를 언급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연일 지수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매물이 증가했다. 연말까지 중국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약세 요인이다. 업종별로는 은행, 자동차, 기계, 비철금속, 시멘트, 보험 등의 업종이 크게 조정 받았다. 반면 내년까지 위안화환율이 6.0선을 하향 돌파할 것이라는 기대로 에어차이나(753 HK) 주가는 10% 넘게 급등했다. 한편 석탄가격 상승에 힘입어 석탄주들도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 분	11/21(목)	전일 대비(%)	5 거래일 전 대비(%)	1 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05.77	-0.04	5.01	3.00	-2.79
홍콩 H	11,333.14	-0.91	9.07	6.64	-0.90
인도 SENSEX	20,298.46	-1.63	0.52	-4.09	4.49
러시아 RTS	1,427.71	-1.35	-0.47	-3.56	-6.50
브라질 보베스파	53,032.91	-2.35	0.78	-2.25	-12.99
베트남 VN	503.54	-0.39	1.14	1.23	21.71
MSCI 이머징마켓	1,019.57	-0.48	2.80	-1.44	-3.38

주: 21일 오후 5시 15분 기준

시장 동향과 특징주

중국 제조업 PMI 부진 등 대내외 악재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되며 코스피 5거래일 만에 2,000P선 하향이탈

- 미국증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예금금리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과 미국 소매판가 예상밖의 호조를 보이며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 FOMC 의사록 공개 이후 양적완화 규모 축소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며 투자심리가 위축, 이를째 하락세를 이어감. 소폭 내림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금융투자를 비롯한 기관의 매도세가 강화되며 장중 1,980P선 중반까지 하락했으나, 낙폭을 다소 줄이며 1,993P로 마감.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닥은 개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및 중국 제조업지표 부진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모습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스마트그리드, ESS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스코 그룹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는 포스코 ICT가 견조한 오름세를 보였으며, LG전자의 3D 편광안경 공급처로 선정된 아큐픽스는 상한가를 기록. 또한, 수직계열화 사업 강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및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에 펌스코가 강세를 보였으며, 기업들의 잇따른 3D프린터 사업 진출에 따른 시장 확대 기대감에 일부 3D프린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임. 한편, 건설업계의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삼성엔지니어링이 7% 가까이 급락하며 신저가를 기록했으며, 3자배정 사모증자를 계획을 밝힌 금성테크도 급락세를 보임

종목/이슈	내 용
포스코 ICT(022100) ▶8,010(+6.52%)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동사는 현재 전력 소비가 많은 철강에서 축적한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기반으로 대용량 ESS 등의 사업을 전개 중
아큐픽스(056730) ▶1,105(상한가)	LG전자의 공급업체로 선정되며 상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G전자가 진행한 한달 간의 인도네시아 공장 생산설비에 대한 실사를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3D 편광안경의 본격적인 납품 확정 소식에 상한가- 동사는 LG전자 3D 편광안경 메이저 공급업체인 쓰리옵틱스 자산을 인수하면서 LG전자 3D 편광안경 메이저 업체로 등극, 내년 3D 편광안경 부분에서만 100억원 이상의 매출 기대
팜스코(036580) ▶7,510(+12.09%)	내년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에 급등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격 하락으로 인한 2014년 투입 원가 개선 및 원화 강세로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에 급등.- 동사는 하림그룹의 양돈용 배합사료 및 축산 계열화 사업을 주요사업영역으로 담당 하고 있으며, 오는 2015년 수직계열화 작업이 마무리돼 이에 따른 고성장 및 고수익 기대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제넥신(095700) ▶29,950(+5.83%)	- 유전자 치료백신 파이프라인(신약후보물질) 중 자궁경부 전암 치료백신 및 B형 간염 치료백신의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며 신고가 행진
이엠코리아(095190) ▶10,200(+0.99%)	-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671% 증가하는 등 실적 호조를 기록했으며, 밸러스트 수처리시스템(BWTS)과 터널굴착장비(TBM)의 매출증가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정적인 흐름을 보인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기아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기아차 (000270)	61,600 (-1.8)	62,700 (11/20)	– 2014년에도 증설효과와 함께 글로벌 판매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 기조 지속 전망 미국판매 만족도 개선으로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신형 PS Soul, 프리미엄 세단 K900(국내 모델명 K9) 출시 등으로 신차 효과 기대
에스엠 (041510)	41,250 (+0.6)	41,000 (11/20)	– 컨텐츠 경쟁력을 바탕으로 부가사업 확대와 함께 SM C&C와의 시너지를 통해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강화된 아티스트 라인업을 바탕으로 일본에 이어 중국, 동남아 진출을 통해 아티스트 활동 증가 전망
대림산업 (000210)	93,000 (-5.0)	97,900 (11/20)	–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유지 – 삼호와 고려개발 등 자회사 리스크가 완화되는 가운데 화학부문 실적 개선 – 해외 플랜트 회복 사이클, 기술 경쟁력, 수주 모멘텀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SK텔레콤 (017670)	211,500 (-6.0)	225,000 (11/15)	– 초고속 LTE시장을 선점하는 가운데 프리미엄 데이터 이용 증가 추세 – SK브로드밴드와 SK하이닉스 등 자회사 실적 호전과 함께 시장 지배력 확대, 배당 및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투자처로 재부각될 가능성
HB테크놀러지 (078150)	1,500 (-12.3)	1,710 (9/30)	– 올해 삼성전자 OLED 투자 확대로 텐어라운드 시현. 경쟁사 이탈로 검사장비 부분 독과점적 수혜 예상 – 관계사 엘에스텍과의 핵심 합병으로 도광판 부문 수직계열화 완성과 동시에 자산 건전성 확보. 합병 후 전환우선주는 모두 전환된 상황이며 잔여 BW 워런트는 연내 소각 예정 – 삼성전자 OLED A3라인 투자 지연 우려가 지속되고 있지만, 기 수주잔고를 통해 실적 개선 추세 지속되고 있어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성광벤드 (014620)	27,700 (-3.7)	28,750 (9/09)	– 전방산업 호조에 힘입어 안정적인 수주 지속. 미국 세일가스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할 전망 – 대규모 설비 증설에 따른 생산성 제고로 매출액 증가와 영업이익률 개선 예상 – 금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품 MIX 개선으로 20%대의 고수익성 유지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기아차, 대림산업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영원무역홀딩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영원무역홀딩스 (009970)	70,700 (+7.3)	65,900 (11/04)	1,533	232	82	7,083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등 이웃도어 브랜드(노스페이스, 에이글)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영원아웃도어는 하반기 및 2014년 실적 개선 모멘텀 예상되며 영원무역도 3분기를 저점으로 4분기와 2014년 외형과 수익성 개선 전망 - 방글라데시 증설 구체화와 함께 생산 품목 및 고객 다각화 시도에 장기 성장 잠재력 내재 - 현 시가총액은 동사가 지분 50.52%를 보유한 영원무역 지분 가치와 유사하며 지분 59%를 보유한 영원아웃도어의 가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 				
LG화학 (051910)	287,000 (-5.7)	304,500 (10/11)	5,010	676	515	29,123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성수지 중심의 화학 업황 반등에 따른 수익성 개선 예상 - 전기차 시장 재조명 등으로 영업적자인 중대형 이차전지 부문의 장기 성장성 재부각 가능성 - OLED 재료 및 터치센서용 ITO 필름 등 신제품 추가로 보다 다양해진 전자재료 제품 포트폴리오 보유 				
고려아연 (010130)	280,500 (-14.2)	327,000 (9/09)	5,010	676	515	29,123	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연과 연 생산 능력확대에 따른 장기 성장 잠재력 보유 - 환경 규제로 최대 수요처인 중국의 제련사 설비 증설이 제한되고 있어 아연과 연 가격 안정화 예상 - 비철금속 산업 최고의 경쟁력, Fumer 증설효과, 귀금속 및 상품가격 안정화 가능성 등을 주목할 필요 				
엔씨소프트 (036570)	215,000 (+27.2)	169,000 (7/30)	726	182	164	8,200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게임인 블레이드앤소울과 길드워2가 중국에서 상용화될 예정으로 하반기 해외 매출 본격화에 대한 기대 유효 - 리니지1과 아이온 등 기존 게임들의 성과가 견조한 가운데 신규 MMORPG인 와일드스타(WildStar)의 연내 출시, 모바일 게임 개발 등을 감안하면 안정적인 성장 기조는 유지될 전망 				
LS (006260)	75,900 (+3.7)	73,200 (7/22)	12,821	449	263	9,462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보다 더딘 실적 개선과 JS전선 문제 등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상태로 밸류에이션은 금융위기 이후 저점 수준으로 추가적인 De-rating 가능성은 제한적 - 하반기 LS산전, LS니꼬동, LS엠트론 등 자회사들의 점진적인 실적 개선 기대 유효 - 전선 사업부가 전력선 수익성 향상, 해저 케이블 이익 기여 본격화, 2014년 자회사 상장 모멘텀 등을 주목할 필요 				
삼성전자 (005930)	1,440,000 (-5.3)	1,520,000 (5/02)	235,178	42,197	31,496	202,968	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판매 호조로 계절적 수요 약세에도 불구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시현 - 갤럭시S4 출시로 2분기 이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와 글로벌 시장 지배력 강화를 감안할 때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 해소 예상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엔씨소프트, 삼성전자, 고려아연, LG화학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은행: NIM 전망 - 예대율 규제가 바꿔놓은 게임의 룰

■ NIM 전망의 중요한 변수는 여수신 경쟁 강도

우리는 NIM 반등을 예상하는 시장 컨센서스와 달리 2014년 은행업종 NIM이 4bp YoY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IM 전망의 주요 변수가 기준금리의 방향성보다 경쟁의 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 2014년 NIM 전망에 대해 시장이 낙관하는 이유도 기준금리의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기 때문인데 우리는 여수신 경쟁의 강도, 특히 수신 경쟁의 강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예대율 규제로 조달의 중요성 더욱 커져

3분기 은행들의 예대율은 97.8%로 연초 이후 소폭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저금리로 인해 예수금 증가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2014년 경기회복으로 은행들의 대출태도가 완화될 경우 대출확대를 위해 은행들은 우선적으로 예수금 유치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다. 2013년 줄곧 하락하던 수신금리가 9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점도 눈여겨볼만하다.

■ KB금융과 하나금융, 고금리 금융채 만기 도래로 조달금리 상승 상쇄 가능

2014년 고금리 금융채 만기 도래로 NIM 수혜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은 KB금융, 외환(하나금융), 신한 순이다. 예수금 유치 경쟁으로 조달금리가 상승할 경우 만기가 도래하는 고금리 금융채의 리프라이싱 효과가 은행별로 조달금리 상승을 상쇄해줄 것이다. 우리는 2014년 PBR 벨류에이션이 KB금융은 0.59배, 하나금융은 0.52배로 매력적이라 판단해 두 종목을 은행업종 최선호주로 유지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20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디지탈옵틱(106520)

매수(유지)
목표가: 32,200원(유지)
종가(11/20): 16,250원

동면(冬眠) 준비

■ What's new : 3분기 매출액 84.0% YoY, 영업이익 62.8% YoY 개선

디지탈옵틱은 3분기에 매출액 430억원(-9.6%QoQ, +84.0%YoY), 영업이익 57억원(-28.4%QoQ, +62.8%YoY)을 달성했다. 이는 우리 추정치(매출액 428억원, 영업이익 58억원)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실적 성장은 긍정적이다.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 하락은 최대 고객사의 13M 렌즈에 대한 가격 인하와 물량 감소(51.5% QoQ)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5M와 8M 렌즈의 양산 본격화로 두 제품의 매출액 합계가 전 분기 대비 22.0% 증가한 점은 최대 고객사내 5M와 8M 공급 점유율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Positives :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로 범용성 5M와 8M 슬림렌즈 수요 증가

최대 고객사는 하반기부터 휴대폰 판매 전략을 주력 High-end 스마트폰에서 보급형 스마트폰 위주로 변경한 것으로 파악된다. 8M 이하의 렌즈가 채용되는 보급형 스마트폰 모델 라인업 확대는 2014년에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양질의 렌즈를 원활하게 공급받기 위해 최대 고객사는 중요한 화소별로 표준화(범용성) 렌즈업체를 선정하고 통상적으로 필요한 양의 대부분을 발주한다. 디지탈옵틱은 3M, 5M, 그리고 8M 렌즈의 표준업체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13M 렌즈 감소가 큰 위험요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태블릿PC의 메인 카메라에는 주로 3M에서 8M 사이의 렌즈가 채용되기 때문에 2014년 글로벌 태블릿PC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 Negatives : 예년과 다르게 4분기에 재고조정 발생할 전망

최근 1달 동안 주가는 12.4% 하락했다.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IT 부품주에 대한 하반기 실적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 4분기가 성수기였던 렌즈산업도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휴대폰 세트업체들의 재고조정에 따른 물량 감소가 발생할 전망이다. 현재 16M 렌즈를 개발 중으로 4분기에 13M 렌즈 부진은 필연적이다. 우리는 12월에 진입하면서 영업현황을 다시 확인하고 4분기 실적을 추정할 것이다.

■ 결론 : 2013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

올해 고화소급 렌즈로 제품 다변화를 통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전망이다. 2014년에는 최대 고객사의 태블릿PC 판매 확대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현 주가는 2014F PER 4.1배로 절대적 저평가 수준이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32,200원(2014F EPS에 KIS 휴대폰부품과 스몰캡업종 평균값 PER 8.1배)을 유지한다.

(단위: 십억원, %, %p)

	3Q13P				증감률		2013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2.8	43.0	0.6	42.8	(9.6)	84.0	163.1	163.0
영업이익	5.8	5.7	(1.5)	5.8	(28.4)	62.8	22.7	23.0
영업이익률(%)	13.5	13.2	(0.3)	13.6	(3.5)	(1.7)	13.9	14.1
세전이익	5.4	5.2	(3.6)	6.3	(33.6)	76.9	22.0	22.7
순이익	4.5	4.1	(8.0)	4.5	(33.6)	87.3	17.9	19.0

*상기 보고서는 2013년 11월 21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이수정 (sujeong.lee@truefriend.com) ☎ 02-3276-6252

◆ 주요 종시 지표

구 분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유 가 증 권	종합주가지수	1,967.56	2,005.64	2,010.81	2,031.64	2,017.24	1,993.78
	등락폭	4.00	38.08	5.17	20.83	-14.40	-23.46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6)	538(4)	342(11)	427(3)	385(18)
		하락(하한)	368(1)	280(3)	463(3)	394(7)	420(0)
	ADR	82.50	84.01	82.32	80.49	82.20	76.69
	이격도	10일	98.45	100.53	100.86	101.81	99.95
		20일	97.28	99.27	99.63	100.73	100.06
	투자심리	3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323	260	314	397	311
	거래대금	(십억 원)	3,810	3,613	3,090	4,232	3,737
코 스 닥	코스닥지수	511.75	512.74	509.54	505.50	504.16	501.05
	등락폭	6.15	0.99	-3.20	-4.04	-1.34	-3.11
	등락종목	상승(상한)	444(8)	535(9)	342(2)	289(4)	386(6)
		하락(하한)	368(5)	384(3)	463(3)	645(4)	521(1)
	ADR	82.42	82.09	78.25	74.88	77.54	71.85
	이격도	10일	98.59	99.20	99.05	98.71	98.87
		20일	97.41	97.72	97.30	96.77	96.71
	투자심리	3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76	310	290	296	235
	거래대금	(십억 원)	1,333	1,381	1,471	1,585	1,139

◆ 주체별 당일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인	외국인	기관계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연기금 등)	기타
유 가 증 권	매수	1,645.6	775.6	795.3	152.6	82.8	194.2	58.7	27.4	279.591	45.1
	매도	1,373.6	1,012.4	844.7	267.7	81.6	202.4	84.0	22.0	187.1	30.9
	순매수	272.0	-236.8	-49.4	-115.1	1.2	-8.1	-25.3	5.4	92.5	14.1
	11월 누계	909.5	-569.6	-210.0	-920.3	14.1	238.3	89.6	-79.5	447.8	-129.9
	13년 누계	-4,126.6	4,598.9	1,279.8	130.0	1,213.3	-6,089.0	-363.3	-2,726.3	9,115.2	-1,752.1
코 스 닥	매수	971.9	65.6	55.1	8.3	5.4	17.4	2.7	2.0	19.3	10.0
	매도	974.6	61.4	57.0	9.8	7.5	16.3	4.7	1.4	17.3	9.5
	순매수	-2.7	4.2	-2.0	-1.5	-2.1	1.1	-2.1	0.6	2.0	0.5
	11월 누계	237.8	-76.5	-144.2	-49.4	-9.1	-9.6	4.1	-4.1	-76.0	-17.2
	13년 누계	-529.7	1,636.2	-245.1	-181.3	-101.8	106.3	-146.7	-88.3	166.7	-861.3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5,974	통신업	-5,828
전기가스업	4,267	전기,전자	-5,116
금융업	4,247	보험	-3,995
KODEX 레버리지	9,415	삼성엔지니어링	-6,695
ARIRANG 200	3,987	SK하이닉스	-5,539
GS	3,874	삼성화재	-5,345
현대차	3,664	TIGER 200	-4,182
현대모비스	3,527	대우조선해양	-3,926

(체결기준: 백만원)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운수장비	13,867	화학	-5,685
전기,전자	11,938	운수창고	-2,205
전기가스업	11,642	기계	-1,889
삼성전자	14,028	삼성엔지니어링	-8,133
한국전력	9,665	GS	-4,761
POSCO	6,990	고려아연	-4,144
SK이노베이션	5,679	한화케미칼	-4,115
삼성중공업	4,680	삼성전기	-3,768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6,040	서비스업	-4,282
화학	2,763	보험	-4,172
철강및금속	1,948	섬유,의복	-1,151
KODEX 레버리지	5,724	LIG손해보험	-4,317
삼성전자	2,612	TIGER 인버스	-2,232
TIGER 레버리지	2,128	기아차	-1,453
삼성전기	1,811	GS	-1,303
SK텔레콤	1,560	한세실업	-1,066

보 협			
순 매 수	순 매 도		
보험	11,294	전기,전자	-2,995
금융업	2,889	화학	-2,893
운수장비	2,459	유통업	-2,826
TIGER 200	17,023	삼성물산	-3,022
삼성화재	10,775	LG디스플레이	-2,473
파워 K200	9,982	고려아연	-2,402
하나금융지주	2,761	한국전력	-2,328
삼성중공업	2,332	GS	-2,159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가스업	23,783	전기,전자	-26,681
금융업	11,085	철강및금속	-17,023
운수장비	10,360	서비스업	-12,567
KODEX 인버스	26,366	KODEX 레버리지	-115,613
현대모비스	13,128	KODEX 200	-29,486
한국전력	11,800	TIGER 200	-21,904
하나금융지주	8,734	삼성엔지니어링	-17,396
한국가스공사	7,534	대우조선해양	-10,466
삼성중공업	7,453	삼성물산	-8,652
현대차	6,746	SK하이닉스	-8,523
SK이노베이션	6,116	GS	-8,304
삼성화재	5,818	고려아연	-8,246
부산가스	4,267	LG디스플레이	-7,741

(체결기준: 백만원)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9,203	전기,전자	-88,931
건설업	1,196	운수장비	-40,182
의료정밀	371	화학	-19,376
TIGER 200	20,828	삼성전자	-58,726
KODEX 200	15,843	현대모비스	-22,489
LG유플러스	8,067	SK텔레콤	-14,845
현대위아	7,373	삼성전기	-14,000
삼성물산	6,310	하나금융지주	-10,132
NAVER	3,037	SK하이닉스	-8,455
호텔신라	3,028	삼성중공업	-8,432
GS건설	3,023	한국전력	-8,365
SK	2,989	삼성엔지니어링	-6,526
한화케미칼	2,485	삼성전자우	-6,17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방송서비스	2,248	금속	-1,390
출판,매체복제	986	전문기술	-1,259
컴퓨터서비스	848	기계,장비	-957
GS홈쇼핑	1,039	성광밴드	-937
에스엠	986	SK브로드밴드	-797
CJ오쇼핑	939	바이로메드	-732
포스코 ICT	798	CJ E&M	-685
모두투어	591	인터파크	-537
컴퓨터서비스	1,346	반도체	-1,798
방송서비스	816	출판,매체복제	-774
연구,개발	671	사업지원	-230
포스코 ICT	1,346	서울반도체	-1,687
바이로메드	671	에스엠	-774
매일유업	536	인터파크	-633
원익IPS	514	티엘아이	-485
CJ E&M	500	파트론	-422

은 행		보 협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운송장비,부품	235	IT부품	-437
비금속	228	인터넷	-82
통신장비	192	오락,문화	-73
포스코켐텍	228	서원인텍	-453
우리산업	184	루멘스	-85
서울반도체	158	가비아	-82
한국토지신탁	132	파라다이스	-74
유비쿼스	113	주성엔지니어링	-42
컴퓨터서비스	645	반도체	-2,644
오락,문화	375	기계,장비	-749
화학	357	운송장비,부품	-233
포스코 ICT	645	서울반도체	-1,611
바이오랜드	392	유진테크	-827
코오롱생명과학	303	휴온스	-344
뷰웍스	300	에스에프에이	-266
파라다이스	277	고영	-25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컴퓨터서비스	3,306	반도체	-7,801
방송서비스	2,739	금속	-1,950
소프트웨어	1,415	IT부품	-1,924
포스코 ICT	3,197	서울반도체	-6,524
GS홈쇼핑	1,345	성광밴드	-1,787
CJ오쇼핑	1,136	인터넷	-1,140
씨젠	1,065	녹십자셀	-755
우리산업	757	유진테크	-737
원스테크넷	630	에스에프에이	-714
빅솔론	606	이엘케이	-652
이녹스	596	에스맥	-638
매일유업	592	KH바텍	-617
CJ프레시웨이	564	메디톡스	-583
반도체	7,665	기계,장비	-3,556
음식료,담배	1,494	방송서비스	-1,655
금속	1,215	제약	-1,358
원익IPS	3,175	셀트리온	-1,847
서울반도체	3,035	KG이니시스	-1,519
삼천리자전거	1,888	에스에프에이	-1,464
성광밴드	1,483	CJ E&M	-1,455
인터넷	1,368	GS홈쇼핑	-1,143
이지바이오	1,358	씨티씨바이오	-832
AP시스템	983	젬백스	-821
안랩	911	동서	-736
조이맥스	839	고영	-683
메디톡스	760	게임빌	-620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SK C&C	14 일	TIGER 200	17 일	이트레이드증권	100 일	에스엠	8 일
동아타이어	11 일	한화	15 일	SBS콘텐츠허브	18 일	실리콘웍스	8 일
대한유화	10 일	아모레G	11 일	GS홈쇼핑	11 일	KTH	6 일
두산	9 일	LS	10 일	메가스터디	10 일	태웅	4 일
LG상사	9 일	풍산	8 일	성우하이텍	8 일	엘앤에프	4 일
세방전지	8 일	동아쏘시오홀딩스	7 일	매일유업	7 일	에스엔유	4 일
LG생명과학	8 일	S&T중공업	6 일	OCI마티리얼즈	7 일	성광벤드	3 일
일진전기	8 일	NAVER	6 일	크루셜텍	4 일	인터파크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50,610	삼성전자	100,492	GS홈쇼핑	5,462	서울반도체	16,771
한국전력	41,445	현대중공업	49,187	CJ E&M	4,676	삼천리자전거	6,255
현대차	36,962	삼성전자	43,704	성우하이텍	4,372	CJ오쇼핑	3,741
현대모비스	34,352	현대차	39,963	매일유업	3,421	이라이콤	3,397
한국가스공사	25,770	POSCO	30,883	하림	3,378	에스엠	3,386
POSCO	25,360	삼성중공업	27,000	에스엠	3,156	인터파크	3,238
하나금융지주	24,140	현대건설	25,479	평화정공	2,673	원익IPS	2,576
삼성중공업	20,910	현대중공업	20,747	다음	1,822	성광벤드	2,106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의료정밀	21	371	392	컴퓨터서비스	3,306	632	3,938
KODEX 인버스	26,366	544	26,910	음식료,담배	431	1,494	1,925
LG생활건강	1,816	616	2,432	출판,매체복제	520	689	1,209
자화전자	1,726	703	2,428	포스코 ICT	3,197	627	3,824
코스맥스	259	1,080	1,339	원익IPS	555	3,175	3,730
LG전자	809	478	1,288	AP시스템	425	983	1,408
대상	942	302	1,244	조이맥스	177	839	1,016
코웨이	564	500	1,064	원스테크넷	630	346	976
메리츠화재	324	586	910	에스엠	422	540	963
웅진케미칼	627	95	722	안랩	2	911	913
삼성물산우	416	56	472	이녹스	596	104	700
				CJ프레시웨이	564	28	592
				한글과컴퓨터	471	92	563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현대상선	28 일	삼성테크윈	19 일	이오테크닉스	13 일	KCC건설	26 일
현대엘리베이	18 일	율촌화학	14 일	심텍	11 일	큐렉소	14 일
TIGER 농산물선물(H)	18 일	한솔제지	13 일	KCC건설	8 일	에이테크솔루션	14 일
현대증권	17 일	SK C&C	13 일	성광밴드	6 일	포스코엠텍	11 일
코오롱	15 일	하나투어	12 일	태웅	6 일	신화인터넷	11 일
한화	12 일	동부제철	11 일	SK브로드밴드	4 일	동서	10 일
LS	10 일	쌍용양회	10 일	인터파크	4 일	포스코켐텍	7 일
대한항공	9 일	동부하이텍	9 일	서울반도체	4 일	메가스터디	7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대우조선해양	-116,983	삼성SDI	-48,840	서울반도체	-28,061	GS홈쇼핑	-5,387
NAVER	-90,480	대한항공	-25,381	인터플렉스	-5,583	게임빌	-4,986
KODEX 200	-55,521	GS건설	-25,292	성광밴드	-5,445	오스템임플란트	-4,067
삼성SDI	-51,046	POSCO	-25,020	원익IPS	-4,827	다음	-3,749
KODEX 레버리지	-41,927	삼성전기	-21,940	태웅	-3,045	셀트리온	-3,555
삼성엔지니어링	-29,126	삼성중공업	-19,591	이라이콤	-2,809	파라다이스	-3,364
TIGER 200	-28,523	오리온	-18,272	AP시스템	-2,772	디스플레이텍	-2,342
KT	-23,924	고려아연	-16,294	루멘스	-2,482	KG이니시스	-2,331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26,681	-88,931	-115,612	기계,장비		-1,227	-3,556
화학	-9,149	-19,376	-28,525	IT부품		-1,924	-1,296
서비스업	-12,567	-14,892	-27,458	제약		-284	-1,358
KODEX 레버리지	-115,613	-4,295	-119,907	에스에프에이		-714	-1,464
삼성전자	-6,453	-58,726	-65,179	셀트리온		-41	-1,847
삼성엔지니어링	-17,396	-6,526	-23,923	KG이니시스		-17	-1,519
삼성전기	-6,820	-14,000	-20,820	CJ E&M		-40	-1,455
SK하이닉스	-8,523	-8,455	-16,978	젬백스		-572	-821
고려아연	-8,246	-5,727	-13,973	고영		-123	-683
대우조선해양	-10,466	-996	-11,462	유진테크		-737	-68
삼성SDI	-4,732	-3,591	-8,323	에스맥		-638	-80
두산중공업	-2,676	-4,996	-7,671	이엘케이		-652	-65
현대미포조선	-5,726	-1,118	-6,843	잉크테크		-524	-5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NAVER	38	24,203
삼성전자	5	7,846
현대중공업	25	6,954
POSCO	19	6,063
OCI	30	5,545
LG화학	17	5,160
한진해운	785	4,807
LG전자	56	3,72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74	3,154
메디톡스	5	980
다음	11	938
서울반도체	19	745
씨젠	7	449
태웅	15	441
에이블씨엔씨	13	437
파트론	24	379

◆ 대차잔고 상위 종목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3,572	5,251,402
POSCO	8,563	2,808,714
LG전자	20,451	1,380,416
현대차	4,773	1,214,832
OCI	5,279	981,821
NAVER	1,370	862,844
현대중공업	2,995	829,649
SK하이닉스	20,256	658,320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3,868	582,455
파라다이스	4,281	111,318
파트론	6,409	99,346
에스엠	2,179	88,887
다음	900	74,677
씨젠	1,036	66,079
CJ E&M	1,978	60,712
서울반도체	1,540	60,516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KOSPI		
순 증	순 감	
증권	13,917	화학
금융업	3,088	운수장비
의료정밀	1,929	제조업
현대증권	10,155	금호타이어
동양증권	2,442	대우건설
미래산업	1,867	삼익악기
SK하이닉스	1,569	삼성중공업
우리금융	1,183	한진해운
LG유플러스	1,159	LG디스플레이
우리종금	1,145	두산중공업
대한항공	1,137	기업은행
SK네트웍스	917	대교
두산건설	910	현대상선
	-567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체결기준: 천주)

KOSDAQ		
순 증	순 감	
IT부품	1,428	통신서비스
운송장비, 부품	600	제약
섬유, 의류	393	오락, 문화
코다코	747	SK브로드밴드
파트론	575	셀트리온
SKC 솔믹스	386	서울반도체
텍셀네트컴	336	미디어플렉스
지엔코	322	포스코 ICT
태웅	227	원익IPS
엘오티비콤	210	한국토지신탁
디오텍	204	이지바이오
우리기술	195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전자인증	180	알에프텍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외국인	4,598.9	-569.6	141.5	58.5	-13.3	245.8	87.2	-236.8
기관계	1,279.8	-210.0	226.2	186.4	61.2	135.5	-107.4	-49.4
(투신)	-6,089.0	238.3	209.1	115.8	48.0	20.7	32.7	-8.1
(연기금)	9,057.8	813.7	164.8	14.9	39.7	25.0	25.6	59.6
(은행)	-2,726.3	-79.5	-33.1	-7.1	-13.2	-9.1	-9.1	5.4
(보험)	1,213.3	14.1	226.3	51.2	19.8	52.5	101.6	1.2
개인	-4,126.6	909.5	-283.9	-243.2	-45.3	-367.9	100.4	272.0
기타	-1,752.1	-129.9	-83.8	-1.6	-2.7	-13.5	-80.2	14.1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KOSPI	2,033.3	1,825.7	1,997.1	1,967.6	2,005.6	2,010.8	2,031.6	2,017.2
고객예탁금	15,249.8	17,680.2	18,014.3	14,751.7	14,797.7	14,201.3	14,096.8	14,623.7
(증감액)	1,996.5	3,611.7	334.1	200.8	46.0	-596.4	-104.5	526.9
(회전율)	50.9	34.2	26.7	34.9	34.6	32.1	42.0	38.5
실질예탁금 증감	-3,314.4	3,791.6	-13,274.3	204.0	318.6	-486.6	-315.4	460.6
신용잔고	59,709.0	44,763.0	39,124.0	4,487.9	4,483.2	4,490.3	4,479.4	4,461.9
미수금	1,778.0	1,877.0	1,241.0	116.1	118.2	118.3	111.5	174.5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전체 주식형	83,923	-9,582	-1,659	158	-84	-275	8	-42
(ex. ETF)		-10,264	-136	43	49	9	-20	-122
국내 주식형	63,215	-5,628	-1,405	188	-78	-268	21	-16
(ex. ETF)		-6,344	118	72	56	15	-7	-96
해외 주식형	20,708	-3,954	-253	-29	-6	-7	-13	-26
(ex. ETF)		-3,920	-253	-29	-6	-7	-13	-26
주식 혼합형	9,846	-87	-20	-1	5	10	-4	-50
채권 혼합형	22,859	4,133	-266	-31	42	72	-102	-56
채권형	56,093	2,465	743	109	-33	194	82	-46
MMF	77,341	10,282	2,744	375	-381	-117	8	346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한국	4,570	-523	-1,163	55	-13	233	83	-215
대만	6,208	-1,207	-1,306	-86	45	4	-260	-339
인도	17,235	906	-669	-	142	156	-	-
인도네시아	-1,353	-320	-967	-17	25	12	-17	-
태국	-4,276	-841	-970	-54	-18	1	-127	-
남아공	548	-1,422	-772	-148	4	-21	-594	-
필리핀	834	-123	-14	-8	6	-3	-9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분	2012년	11/14(목)	11/15(금)	11/18(월)	11/19(화)	11/20(수)	11/21(목)
회사채 (AA-)	3.29	3.37	3.37	3.36	3.38	3.38	3.40
회사채 (BBB-)	8.80	9.07	9.07	9.06	9.08	9.09	9.11
국고채 (3년)	2.82	2.93	2.94	2.93	2.95	2.95	2.97
국고채 (5년)	2.97	3.23	3.24	3.24	3.28	3.29	3.32
국고채 (10년)	3.16	3.57	3.59	3.58	3.63	3.63	3.67
미국채 (10년)	1.76	2.72	2.69	2.63	2.69	2.71	-
일국채 (10년)	0.80	0.60	0.63	0.63	0.62	0.61	-
원/달러	1,070.60	1,067.90	1,063.40	1,057.90	1,056.40	1,057.90	1,062.9
원/엔	1,243.73	1,073.38	1,062.77	1,058.42	1,056.08	1,059.38	1,054.5
엔/달러	86.08	100.06	100.15	99.95	100.03	99.86	100.79
달러/유로	1.32	1.34	1.34	1.35	1.35	1.35	1.34
DDR3 1Gb (1333MHz)	0.67	1.41	1.40	1.40	1.40	1.39	-
DDR3 2Gb (1333MHz)	1.07	1.98	2.00	2.02	2.02	2.02	-
NAND Flash 16Gb (MLC)	1.89	3.54	3.54	3.54	3.54	3.52	-
CRB 지수	295.01	273.84	274.34	272.92	272.47	273.30	-
LME 지수	3,454.5	3,039.7	3,048.2	3,028.1	3,033.9	3,034.5	-
BDI	699	1,517	1,507	1,500	1,495	1,527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3.88	93.84	93.03	93.34	93.33	-
금 (달러/온스)	1,663.40	1,286.30	1,287.40	1,272.30	1,273.50	1,258.0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312월물	베이시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증감
			이론	마감	평균			
11월 15일	264.20	264.75	0.52	0.55	0.69	166,215	115,868	2,607
11월 18일	265.03	265.60	0.46	0.57	0.19	105,878	114,187	-1,681
11월 19일	267.81	268.60	0.45	0.79	1.05	163,806	117,956	3,769
11월 20일	265.62	266.90	0.42	1.28	1.23	125,892	120,726	2,770
11월 21일	262.20	262.20	0.42	0.00	0.20	194,637	115,912	-4,814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보험	기금
		증권	투신	은행	보험	기금			
11월 15일	2,075	-1,389	-1,351	-1,981	527	33	111	-39	
11월 18일	-1,114	672	373	914	-586	45	34	-35	
11월 19일	951	326	-1,759	-2,836	891	-50	189	-53	
11월 20일	703	-56	-484	1,932	-2,600	136	5	43	
11월 21일	-4,570	-644	6,174	3,996	1,681	37	372	37	
누적포지션	-12,779	4,159	8,969	9,000	-522	1,796	-1,535	280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15일	550	649	99	536	618	82	14	31	17	5,261	9,414
11월 18일	554	521	-33	528	512	-17	26	10	-16	5,276	9,412
11월 19일	610	1,030	420	598	988	390	12	42	30	5,275	9,443
11월 20일	830	927	97	818	850	32	12	77	65	5,258	9,492
11월 21일	747	630	-117	709	616	-92	39	1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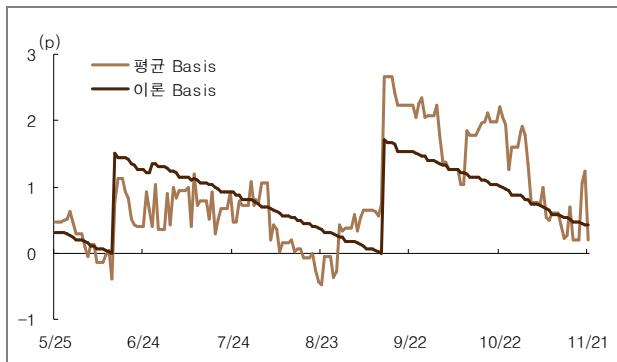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증감	변동성			
13.37	3,492	167,726	0.15	277.50	16.00	123	-11	22.22		
13.37	3,385	217,926	0.29	275.00	12.80	122	-49	14.61		
13.39	13,070	225,945	0.53	272.50	11.00	409	-154	17.18		
13.43	7,235	191,312	0.92	270.00	8.75	1,589	-405	15.78		
13.57	6,631	141,861	1.53	267.50	6.85	6,205	-943	15.49		
13.76	4,895	104,260	2.40	265.00	5.25	17,791	-1,591	15.60		
13.96	1,094	15,198	3.55	262.50	3.85	55,032	-1,364	15.53		
14.03	471	5,628	4.95	260.00	2.70	184,251	-2,152	15.45		
13.77	98	1,067	6.55	257.50	1.89	182,541	-2,668	15.77		
13.71	20	528	8.45	255.00	1.32	219,226	-4,301	16.28		
14.41	34	96	10.65	252.50	0.90	183,212	-4,540	1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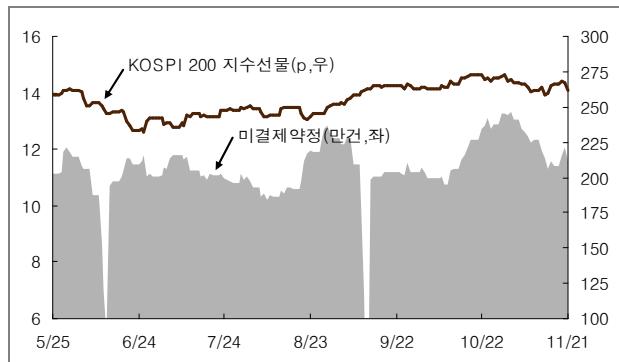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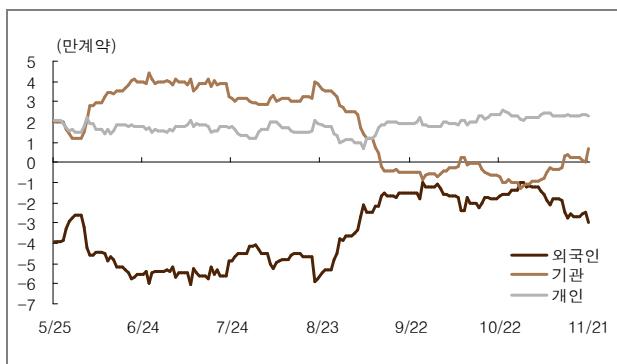
- 평균 Basis: 0.20 (전 거래일 대비 1.03 하락)
- 이론 Basis: 0.42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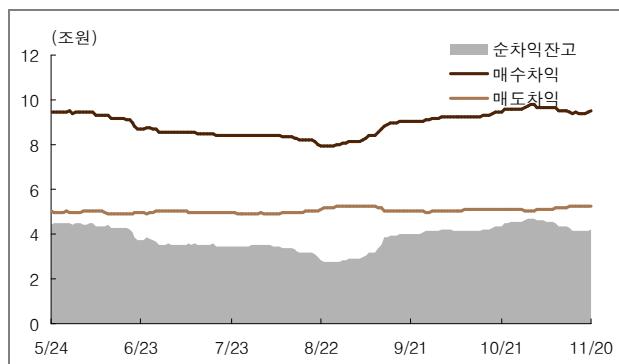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4,814 계약 감소한 115,912 계약
- 선물가격(262.20): 전 거래일 대비 4.70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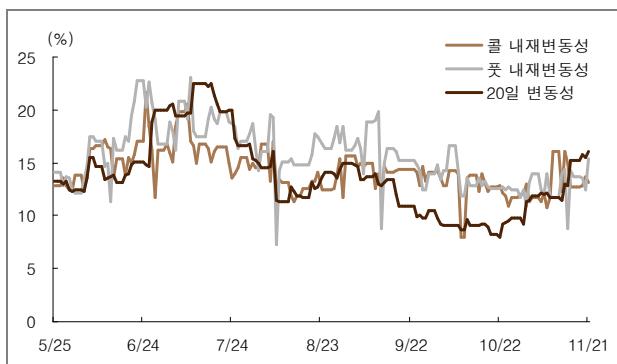
- 외국인: 4,570 계약 순매도
- 기관: 6,174 계약 순매수 / 개인: 644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247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922 억원 순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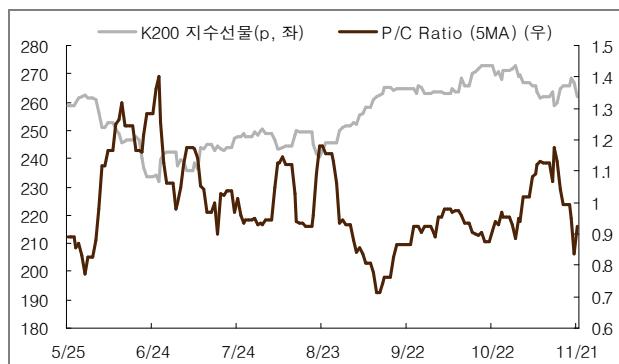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3.1% / 풋 15.4%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6.0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3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1	12	13	14	15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3.2%, 3.3%, 3.1%) 10월 생산자물가지수 (-1.5%, -1.4%, -1.3%) 10월 광공업생산 (10.3%, 10.0%, 10.2%) 日> 9월 BoP 경상수지 (억 엔) (5,873, 4,008, 1,615)	美> 10월 NFIB 소기업낙관지수 (91.6, 93.5, 93.9) 日> 10월 통화량 M2 YoY (4.1%, 3.9%, 3.9%) 10월 통화량 M3 YoY (3.3%, 3.1%, 3.1%) 9월 3차산업지수 MoM (-0.2%, 0.2%, 0.6%)	韓> 10월 실업률 SA (3.0%, 3.0%, 3.0%)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8%, n/a, -7.0%) 유럽> 9월 산업생산 SA MoM (-0.5%, -0.2%, 1.0%) 日> 10월 국내 CGPI YoY (2.5%, 2.5%, 2.3%)	韓>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 (2.50%, 2.50%, 2.50%) 美> 9월 무역수지 (억 달러) (-418, -390, -388) 옐런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 유럽> 3분기 GDP SA YoY (-0.4%, -0.3%, -0.6%) 日> 3분기 GDP SA (0.5%, 0.4%, 0.9%) 9월 광공업생산 (1.3%, n/a, 1.5%)	美> 10월 광공업생산 (-0.1%, 0.2%, 0.7%) 10월 수입물가지수 MoM (-0.7%, -0.5%, 0.1%) 유럽>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7%, 0.7%, 0.7%)
18	19	20	21	22
美> 9월 총 순 TIC 흐름(억달러) (-106.8, n/a, -138) 실적발표> 美 타이슨 푸드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54, 56, 55) 버뱅키 워싱턴 경제클럽 연설 中> 10월 외국인 직접투자 (1.2%, 6.1%, 4.9%) 日> 9월 최종 동행지수 (108.4, n/a, 108.2) 9월 최종 선행지수 CI (109.2, n/a, 109.5) 실적발표> 美 델, 베스트바이, 휴디포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2.3%, n/a, -1.8%) 10월 소매판매 추정 전월비 (0.4%, 0.1%, 0.0%) 10월 소비자물가지수 (-0.1%, 0.0%, 0.2%) 10월 FOMC 의사록 공개 日> 10월 조정 무역수지(십억엔) (-1,073, -839, -1,091) 실적발표> 韓 동아쏘시오홀딩스 美 스테이플스, Deere & Co., Lowe's	美> 10월 기준주택매매 (n/a, -2.5%, -1.9%) 9월 기업재고 (n/a, 0.3%, 0.3%) 11월 Markit 미국 PMI 잠정 (n/a, n/a, 52.5) 10월 생산자물가지수 (n/a, -0.2%, -0.1%) 유럽>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예상 (n/a, 51.6, 51.3) 中> 11월 HSBC 플래시 제조업 PMI (50.4, 50.8, 50.9)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0.1%, 0.1%, 0.1%) 실적발표> 韓 코라오허딩스, 와이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유럽> 3분기 독일 GDP SA QoQ (n/a, 0.3%, 0.3%) 실적발표> 韓 빙그레 美 달러트리, 타겟, 캡
25	26	27	28	29
美> 9월 총 순 TIC 흐름	美> 10월 미결주택매매 10월 주택착공건수 10월 건축허가 9월 케이스슬러 주택가격지수	美> MBA 주택융자 신청지수 10월 내구재 주문	韓> 10월 BoP 경상수지 美>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日> 10월 소매판매	韓> 10월 광공업생산 YoY 유럽> 10월 유로존 실업률 11월 유로존 소비자물가지수 日> 10월 실업률 10월 소비자물가지수 10월 광공업생산 10월 자동차생산

☞ 주: 갈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 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Memo

Memo

Memo
